

사학연금

Teacher's pension magazine

03

Vol. 436
2023.March



Colleen Paige

사학연금이 만드는 매거진

사학연금



표지이야기

3월은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를 떠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하고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날인데요.

사학연금 3월호는 많은 이들의 가족인

반려동물의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CONTENTS



정정안내

사학연금 2월호 신년 소식에 소개된 '만 65세 이상 교통비 감면' 내용은 2023년에 바뀐 제도가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이에 정정합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발행인	주명현
발행일	2023년 3월 1일(비매물)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3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 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
연금업무 상담	1588-4110(유료)

— 공감

- 04 **명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반려견이 주는 행복
- 06 **인물**
세상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한 날
국제 강아지의 날
- 08 **여행**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곳
뉴욕 센트럴파크
- 12 **짓다**
- 스마트워치와 수지도서관
- 해묵은 문제를 풀다
- 봄 밤
- 빛

— 소통

- 18 **건강 식**
환절기 몸보신엔? 주꾸미 덮밥
- 20 **인생 책**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 22 **지구 인**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1석2조 생활습관
공유경제와 쓰담달리기
- 26 **경제 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내 삶의 질도 높여주는 '펫테크'
- 28 **이런 앱**
목표 달성의 동반자 '마이루틴'
- 30 **요즘 말**
'펫밀리(Pet+Family)' 1,500만 시대!
우리 평생 함께하자♥

— 알림

- 32 **공단 소식**
사학연금(TP) 경영정보
- 34 **독자 마당**
- 35 **제휴 복지**



말로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반려견이 주는 행복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이다. 미국의 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Colleen Paige)의 제안으로 2006년에 지정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기념하기 시작했다. 콜린 페이지가 기념일을 만든 이유는 반려견과의 추억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버려진 강아지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시설을 구축하고 유기견 입양을 권장하며 세계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기 위함이었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실·유기되는 동물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물자유연대 '2021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6,984건이었다. 그럼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콜린 페이지, 그녀가 말하는 반려인의 삶과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본다.

글 유민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삶을 생각하다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지정된 '국제 강아지의 날'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반려인들의 축제가 열린다. 그중 2016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참여해 주목받은 캠페인이 있다.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사진을 SNS에 #nationalpuppyday라는 문구와 함께 업로드 하는 것. 이 캠페인에 전 세계 많은 반려인이 동참하면서 국제 강아지의 날이 전 세계로 퍼



졌다. 콜린 페이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사람이 유기견과 반려동물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아래와 같은 말을 전했다.

"I believe all animals are sentient beings created by God, that deserve our love and compassion. No animal should ever have to suffer, especially at the hand of humans. I'd like to ask animal lovers everywhere rescue to help support animals in need. Even if all you did was donate \$1 a month, if a million people cared enough to do that, that's 12 million dollars raised for shelters across the nation and most of you wouldn't even miss that dollar. Think of how much that would change the world for unwanted pets especially if it were to become a global trend."

"저는 모든 동물은 신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연민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어떤 동물도 인간의 손에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 애호가분들께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돕기 위한 기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매달 1달러씩 기부한다고 해도, 이를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전국의 수많은 보호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기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부문화가 전 세계에 퍼진다면 얼마나 많은 동물의 삶이 변화할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은, 는, 이, 가'가 없어도 의미가 전달되긴 하지만, 있으면 말이 더 예뻐지는 것처럼 반려견이 우리 삶에 '은, 는, 이, 가'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 강형욱 훈련사가 반려견이 주는 행복을 표현한 말이다. 이제는 반대로 내가 반려동물에게 1년 중 가장 행복한 하루를 선물할 차례다. 다가오는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에는 나와 우리의 반려동물을 위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fiv](#)



화창한 봄날 천진난만하게 들판을 뛰어노는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면 이유 없이 흐뭇하고 행복해진다. 대략 1만여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강아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보호자를 지키는 든직한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강아지들을 위한 날이 바로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이다. 콜린 페이지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 강아지의 날은 어떤 날이며 우리나라는 반려견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본다.

글 정미래

세상 모든 강아지들이 행복한 날 국제 강아지의 날



국제 강아지의 날은 어떤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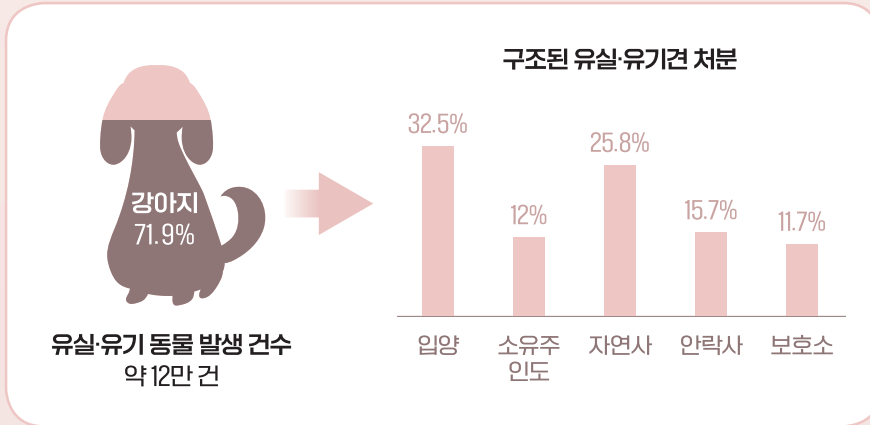
매년 3월 23일이면 '#nationalpuppyday'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감쪽하고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사진을 올리는 보호자들이 많다. 바로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2006년 미국의 반려동물학자인

콜린 페이지(Colleen Paige)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강아지를 기억하고 고마워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는 따로 있다. 바로 유기견에 대한 관심과 입장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년 3월 23일에 유기견 보호와 입장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가 진행된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존재

우리나라는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을 만큼 반려인구가 높다. 그러나 반려인구가 높은 만큼 버려지는 유기견의 숫자도 점차 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동물자유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유실·유기 동물 발생 건수는 약 12만 건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강아지는 7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만난 사례는 32.5%, 원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여전히 많은 수의 동물들이 자연사(25.8%)나 안락사(15.7%)로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보호소(11.7%)에 머물러 있는 동물도 많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사랑받아야 마땅할 존재다. 그러나 유기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믿었던 보호자에게 버려지는 아픔을 겪게 된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2년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1년에 법이 만들어진 뒤 31년 만에 대대적으로 법률이 정비된 것.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모두의 염원이 모여면 좀 더 강아지가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소유자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학대로 명시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도 마련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의 건강을 점검하는 전임수의사 배치
-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장모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동물자유연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곳

뉴욕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도심 한가운데 울창한 숲과 호수 그리고 드넓은 잔디밭이 있다면 믿겠는가. 도시 중의 도시, 미국의 뉴욕 중심에 그런 곳이 있다. 바로 2017년 4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센트럴파크이다. 이곳은 미국 최초의 인공 공원이면서 코즈모폴리탄 속에 만들어진 최고의 숲이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로 삭막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센트럴파크는 1875년 개장돼 사람은 물론 동물들의 휴식처이자 서식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곳,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글 유민지



뉴욕의 허파

도심 속 자연을 담은 센트럴파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 공원이다. 50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심겨 있어 뉴욕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곳이 공원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돌로 가득 차 있던 습지였다고 한다. 뉴욕시는 도시의 소음과 대혼란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1850년 버림받은 이곳을 거대한 공원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센트럴파크는 복잡한 도시, 뉴욕의 중심지에서 모두의 쉼터가 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래서일까. 센트럴파크를 거닐다 보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보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잔디밭에 자유롭게 누워있는 사람, 일상을 떠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뉴욕커의 상징 중 하나인 스케이트보드나 인라인 등을 즐기는 이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인 뉴욕답게 공원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노래, 춤, 악기 연주는 물론 마술, 차력, 코스프레 등 다양한 퍼포먼스도 만날 수 있다.

공원 내 호수 주변에는 여러 수생식물과 꽃들이 피어있어 싱그럽다. 뿐만 아니라 호수의 물이 맑고 깨끗한 환경임을 증명하듯 호수에는 오리와 백로, 거북이 등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간다. 또 센트럴파크 곳곳의 나무와 숲은 야생 다람쥐와 청설모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여유를 갖고 호수 앞 벤치에 앉아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도 소중한 재미다.





Jacqueline Kennedy Onassis Reservoir(재클린 캐네디 오나시스 저수지)

4만 명이 사랑하는 공간

존재 자체로도 새롭고 아름다운 뉴욕 센트럴파크는 연간 4,000만 명이 방문하는 뉴욕 시민들의 휴식 장소이자, 이방인들의 관광지이다. 그만큼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넘쳐난다. 그중에서도 센트럴파크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명소들이 있다.

첫 번째 장소는 센트럴파크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저수지인 'Jacqueline Kennedy Onassis Reservoir(재클린

캐네디 오나시스 저수지)'다. 넓이 42,8974m²의 저수지로 센트럴파크 전체 면적의 1/8을 차지한다. 저수지 주변에는 조깅 트랙이 놓여 있어 매년 112개국, 3만여 명이 참여하는 'THE NEW YORK CITY MARATHON'대회가 열린다. 마라톤에서 완주한 사람은 메달을 받는데, 이 메달을 목에 걸고 뉴욕 도심을 다니면 음식점과 공공장소 등 모든 곳에서 환호와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센트럴파크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 'The Lake (더 레이크)'위에 연결된 'Bow Bridge(보우브릿지)'다. 많은 방문객과 포토그래퍼들이 보우브릿지를 찾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다리 위에서 바라본 장관을 사진 한 컷에 담기 위함이다. 센트럴파크의 넓고 푸른 호수를 앞에 두고 웅장한 숲과 알록달록 꽃들이 주변을 수놓은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또 호수에 비친 햇살과 숲, 꽃 그리고 높게 지어진 뉴욕의 여러 건물마저 아름답다.

보우브릿지를 건너 20여 분 정도 걸다 보면 큰 광장이 보이는데 그곳에는 Bethesda Terrace(베테스다 테라스)와 Bethesda Fountain(베테스다 분수)이 자리 잡고 있다. 베테스다 테라스는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 주인공 덴과 그레타가 버스킹을 하고 녹음을 했던 곳 중 하나다. 베테스다 테라스는 7개의 아치형 터널의 천장에 펼쳐진



Bow Bridge(보우브릿지)



Bethesda Fountain, Terrace(베데스다 분수, 테라스)

00

존재 자체로도 새롭고 아름다운
뉴욕 센트럴파크는 연간 4,000만 명이
방문하는 뉴욕 시민들의 휴식 장소이자,
이방인들의 관광지이다.

00

화려한 무늬와 아늑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져 그리스 신전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테라스는 비긴 어게인 속 주인공이 되어 사진을 찍거나 햇빛을 피해 휴식을 취하는 이들로 항상 붐빈다. 뿐만 아니라 광장에는 좋은 음향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어 노래, 악기 연주 등 길거리 공연이 자주 열린다.

광장 중앙에 위치한 베데스다 분수는 1842년 뉴욕시가 상수도관 개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분수대로, 성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을 본떠 만들었다. 베데스다 분수대 중앙에는 '물의 천사'로 알려진 베데스다 청동상과 그 아래로 평화, 건강, 순수, 절제를 상징하는 4개의 아기천사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다.

베데스다 테라스와 분수를 지나면 넓은 잔디밭이 나온다. 우리가 센트럴파크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모습, 그곳이 바로 Sheep Meadow(Sheep 미도우)다. 원래 이곳은 양을 풀어 기르던 풀밭으로 1934년까지 목초지로 활용됐다. 지금은 양 대신 뉴욕 시민들이 돛자리를 펴고, 그곳에서 샌드위치와 음료 등 간식을 먹거나 일광욕을 즐기고 독서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센트럴파크에서만큼은 각자의 방법으로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뉴요커들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자신만의 센트럴파크를 정하고 그곳에서 잠시의 여유를 가져보길 바란다. [ttd](#)



Sheep Meadow(Sheep 미도우)

스마트워치와 수지도서관

글 김동연(강남대학교 퇴임)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스마트워치를 받았다. 좀처럼 생일 선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사달라고 했다. 아내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상한 상황인지라 웬일인가 싶어 두말없이 사줬다. 사실 요즘 시계를 손목에 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골프를 하려고 필드에 나가면서 거리 측정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대응으로 스마트워치에 골프 앱(app)을 깔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계 기능에 거리측정까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선택했던 것이다.

막상 스마트워치를 받아보니 그 안에는 실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 휴대폰과 연동되어 문자나 전화를 즉시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된 기념사진을 시계 화면에 무작위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추억의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러나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수면, 운동, 심박수, 활동'을 보여주는 건강 앱이다. 애초의 구입 목적이었던 골프 앱은 한 달에 두어 번밖에 쓰지 못하는 것에 반해 건강과 관련된 앱은 아주 자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활동'앱은 세 가지 링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루에 '움직이기' 510kcal, '운동하기' 30분, '일어서기' 12시간을 실행하면 링이 완성되는 방식이다. 일어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앉아 있으면, 일어설 시간이라고 경고를 보낸다. 목표한 칼로리 소모량에 근접해지면, 아직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있으니 몇 분만 빨리 움직여 달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감시와 독촉 속에서 세 개의 링이 완성되면 축포를 터뜨린다. 그리고 보상으로 '움직이기 목표 최장 연속 달성(30일)', '일주일 7번 운동 달성', '완벽한 달' 등의 배지를 달아준다. 거기에는 '대단해요, 내일도 부탁해요'라는 멘트를 잊지 않으니 귀엽기까지 하다.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 넘쳐나는 시간을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였다. 이제 2년이 지나가니 어느 정도 은퇴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요즘은 평생 하지 않던 운동으로 소일하고 있다. 이 운동에 스마트워치의 운동 앱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전에 헬스장에서 1시간 정도를 운동하고 나면 약 300kcal 정도를 소모한다. 이 정도로 하루 운동량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은 200kcal를 더 태우기 위해 오후에 다시 산책을 한다. 목표는 수지도서관까지 왕복하는 것이다. 성북천변에 마련된 산책길을 따라 가면 편도 3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산책을 끝내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때면, 스마트워치가 대개 '오늘 움직이기 목표 달성'이라는 멘트와 함께 축포를 터뜨린다.

산책의 중간 기착지인 수지도서관에서는 대체로 2시간 정도를 머문다. 수지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 시설에 277,603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는 공공 복합 문화 공간이다. 나는 평생 도서관과 가깝게 살아왔다. 지금처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논문을 쓸 때는 전국의 도서관을 찾아 헤매었다. 그때는 보이지 않던 도서관의 매력이 지금은 눈에 들어온다. 서가를 여유 있게 둘러보며 책을 감상하고, 읽고 싶은 책을 꺼내 든다.

내가 주로 들르는 곳은 신문과 잡지가 진열되어 있는 정기간행물 공간이다. 의자와 소파가 적당히 배치된 열린 공간에는 일간 신문은 물론 주간지, 월간지 등 각양각색의 잡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철학, 문학, 역사, 지리, 시사, 예술, 여행, 건강, 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 모두 92종이나 되는 잡지가 있다.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담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다양한 장서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생각할 거리도 제공해 준다. 가끔 잊고 살았던 것을 추억하게도 한다. 때론 가슴이 뛰게도 한다. 도서관까지의 왕복은 충분한 운동량을 제공해 준다. 스마트워치가 운동과 책을 연결해 주었다. 수지도서관과 나의 관계가 스마트워치의 축포 소리를 들으며 오래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해묵은 문제를 풀다

글 조하식(한광고등학교 퇴임)



정년퇴임을 하고서도 나에겐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어렵사리 박사과정에 합격한 뒤 여러 가지 여건상 미뤄두었던 미완의 과제였다. 일단 올 한 해는 폭 쉬면서 건강부터 챙기라는 아내의 충고마저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홀쩍 이순을 넘긴 나이에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주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한 채 당차게 착수한 늦깎이의 향학열.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공은 내게 팔목할 만한 집중력을 선사했다. 그도 그럴 것이 꼭 해내리라는 다짐만은 하늘을 찔렀으니까.

하지만 첫 학기부터 만만찮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다. 느닷없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질문도 자유롭지 못한데다가 각종 자료를 찾는 방법조차 극히 서툰 상황. 처음 맞닥뜨리는 국면인지라 담당 교수나 교학과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다가온 새내기의 발제 순서. 주어진 논제를 정리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미묘한 문제 제기에 응대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은 건 너무나 당연했다. 예리하게 파고드는 질의에 무진 애를 먹었으나 그런대로 무탈하게 넘어간 기억이 여태껏 뇌리에 생생하다.

첫째 관문은 영어시험. 어려운 어휘들을 익히면서 복잡한 구문을 해석하는 과업이 주어졌다. 차례차례 암기의 파고를 넘으려면 무한 반복하는 수밖에 뾰족한 수가 있을까. 노트에 몇 번이고 빠르게 기록하며 행간의 의미를 숙지한 끝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둘째 관문은 종합시험. 글자 그대로 전공 학문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두루 분석하여 아우르는 필답고사였다. 포괄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작업은 실로 난해한 영역이어서 극도로 긴장이 되었으나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가까스로 합격하는 행운을 누렸다.


셋째 관문은 프로포절(Proposal). 즉 논문계획서 공개발표 자료로서 논문 제목을 정하고 예상 목차에 따른 간략한 내용 전개상 열개와 연구방법론에 의거해 조사한 선행참고문헌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말하자면 학위논문에 관한 예비심사를 받는 단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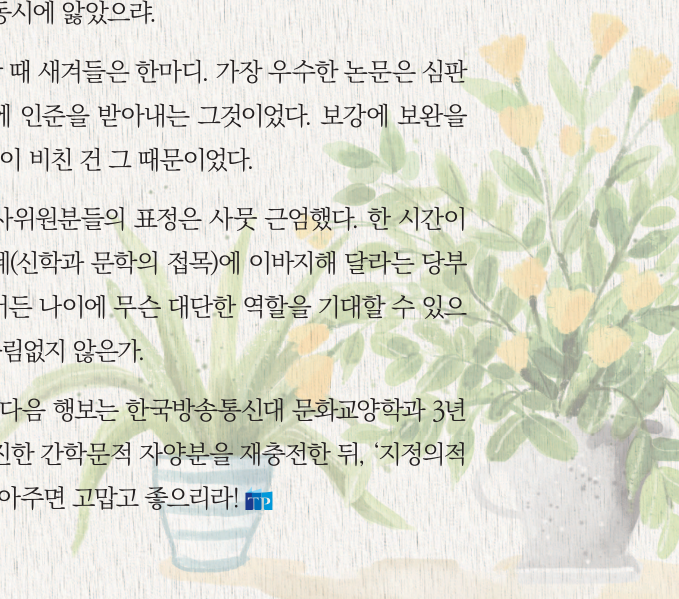
남은 관문은 두 번의 심사 절차. 이제 발표한 논제를 하나하나 충실히 채워야 하는 난제가 바로 코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다소 거창한 듯한 서론은 전체를 품는 청사진이기에 수정에 보정을 거듭해야 했다. 차라리 본론의 각 대항목을 써 내려가는 작업이 쉬울 정도. 다행히 학기마다 소논문을 중심으로 미리 구도를 짜 놓았기에 예정대로 진도를 뺄 수 있었다.

인문학이라는 분야를 놓고 별이는 교수들의 갈질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표제만 해도 삼세번을 넘게 고치기를 되풀이해야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피와 살을 녹여 탈고한 원고는 가차 없이 잘려나가고, 급기야는 거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다. 오죽 심했으면 치열한 문답이 오간 중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뒤 정신은 물론 육체적 몸살을 동시에 앓았으랴.

그때 나를 일으켜 세운 힘은 논문작성법을 수강할 때 새겨들은 한마디. 가장 우수한 논문은 심판관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한눈에 꿰뚫어 최단 시일에 인준을 받아내는 그것이었다. 보강에 보원을 거쳐 철학박사학위 청구논문의 맥락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친 건 그 때문이었다.

드디어 최종 심사일. 의관을 정제하고 마주한 심사위원분들의 표정은 사뭇 근엄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심의한 결과는 축복의 악수였다. 앞으로 학계(신학과 문학의 접목)에 이바지해 달라는 당부는 무겁고도 간결했다. 기실 법적 노인의 범주에 접어든 나이에 무슨 대단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랴마는 이는 정녕 개인적으로는 뜻 깊은 성취임이 틀림없지 않은가.

지인들로부터 듬뿍 축하 세례를 받으며 내가 디딘 다음 행보는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3년 편입. 웬 뜬금없는 경우냐 가우뚱하지 말고 그간 소진한 간학문적 자양분을 재충전한 뒤, '지정의적 글쓰기의 체계화'를 위한 통섭의 일환이라고 곱게 보아주면 고맙고 좋으리라! 




봄 밤

글 박근수(해성고등학교 퇴임)

먼저 핀 매화가 창백한 얼굴로 떨어진다
 굴러 떨어진 자리에 달빛이 스미면
 꽃꼭지가 봄을 꼭 물고 놓지 않는다

수액은 물관부 따라 흐르다가
 둥글게 둥글게 원을 그리며 달이 되고
 매실 하나 잉태한 채
 흰 매화는 곧 푸르게 눈을 뜰 것이다

봄눈 위에 푹푹 떨어진 밤의 잔해 속에서
 눈 날리듯 흩어지는 매화 꽃잎을 보려고
 봄밤이 거문고 줄에 걸려 툭툭 붙어있다
 툭, 툭기는 소리에

땅의 숨소릴 고요히 듣던 매화의 심장이 다시 일어선다
 흰 버선을 신고서 

빛

글 박대중(예명대학원대학교 재직)

자욱한 안개 사이로 보이는 외로운 섬
그 속에 외로이 켜진 희미한 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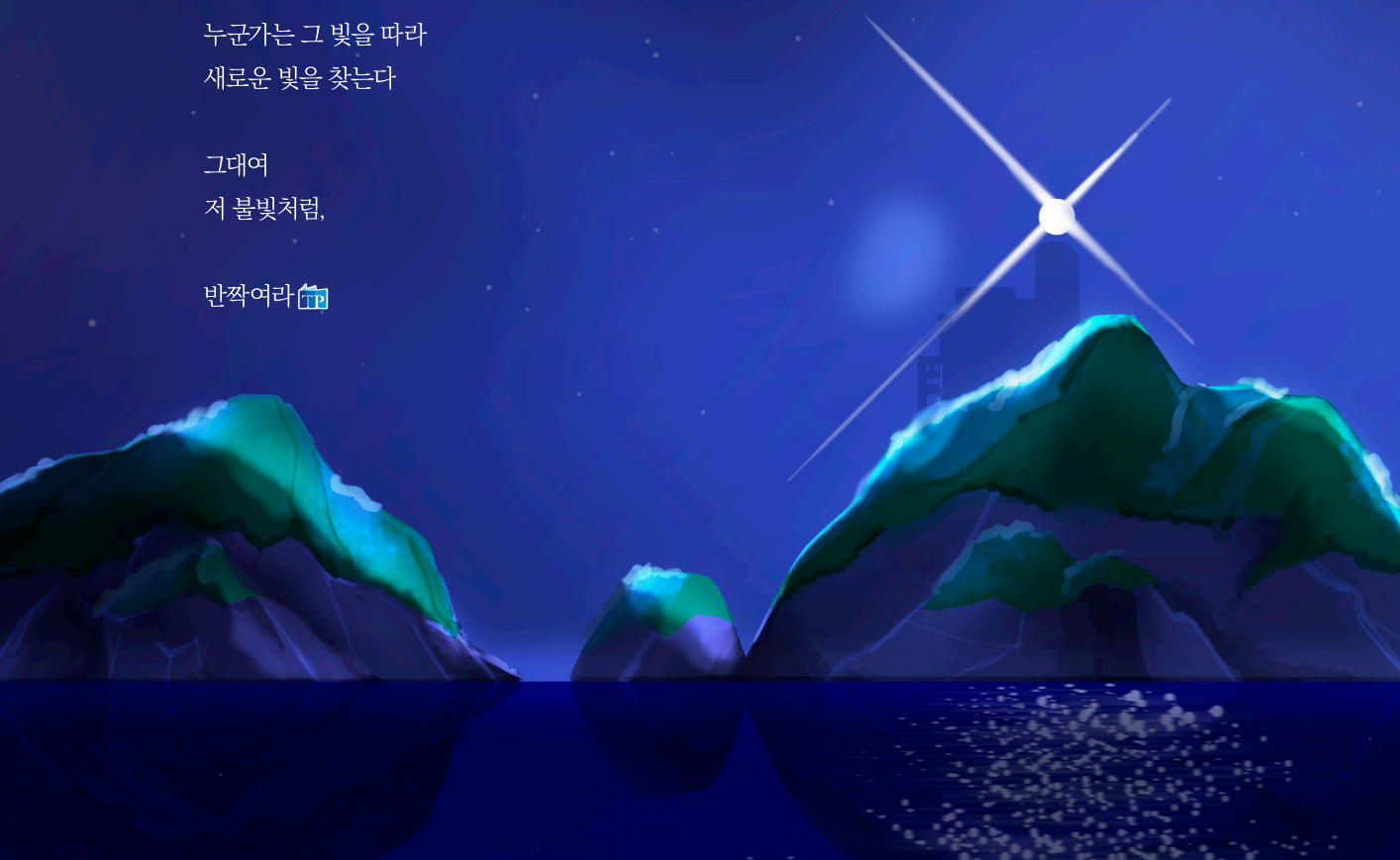
바닷물을 삼킨 듯한 바람이 섬을 감싸고
달빛조차 눈길을 거둔 어둠속에서
그 불빛은 굳건히 빛난다

누군가는 그 빛이 있어 길을 찾고

누군가는 그 빛을 따라
새로운 빛을 찾는다

그대여
저 불빛처럼,

반짝여라 





환절기 몸보신엔?

주꾸미 덮밥

글 문소현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에는 주꾸미가 제철이다.
콜레스테롤 감소와
피로 해소에 탁월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주꾸미.
보양식으로 여겨지는 주꾸미는
데치거나 볶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된다.
이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주꾸미 요리는
바로 주꾸미 볶음이다.
매콤달콤한 양념장으로 만든
주꾸미 볶음을 흰쌀밥에 얹은
주꾸미 덮밥을 만들어보자.



주 재료(2인분 기준)

주꾸미 8마리(400g), 양파 1개, 대파 1/2대,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밥 2공기,
참기름 1큰술, 통깨 약간, 식용유 약간


주꾸미 세척 재료

밀가루, 굵은 소금, 청주

양념장 재료

고춧가루 3큰술, 고추장 2큰술,
간장 2큰술, 맛술 2큰술, 설탕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생강가루 1/4 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1. 주꾸미는 머리 부분을 뒤집어 먹통과 내장을 떼어낸 후, 굵은 소금과 밀가루를 넣고 문질러 씻는다.
2. 끓는 물에 청주와 소금을 넣고 손질한 주꾸미를 넣어 10초 정도 살짝 데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3.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은 후 손질한 주꾸미를 넣고 재워둔다.
4. 양파는 굵게 채를 썰고 대파와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준다.
5.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볶다가 향이 올라오면 양파를 넣어 볶는다.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양념한 주꾸미와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고 고루 섞이도록 빠르게 볶는다.
6. 공기에 밥을 담은 후 주꾸미 볶음을 얹고 통깨를 뿌린 후 참기름을 1큰술을 넣어준다.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기

책 <반려동물과 함께하다>

제공 크레파스북



*본 도서는 출판사 '크레파스북'에서 협찬 받은 도서로 이벤트를 통해 5분께 증정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공생을 위하여

이 책의 저자는 '글 쓰는 수의사'이자 수의학 신문 <데일리벳>의 대표다. 동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정부의 정책과 규제,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누구보다 깊고 빠르게 느낀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양육 문화와 반려산업, 정부의 정책, 현상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반려인이 라면 꼭 지켜야 할 정보에 관한 것이다.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해결책이 될 반려동물등록제부터 개 물림 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펫티켓까지 꼼꼼하게 다룬다. 또한 반려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동물 병원 진료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료비를 낮추는 현명한 방안을 제시한다.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위해 연간 13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방법, 길고양이 TNR 사업, 입양을 위한 정보 등도 담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불러온 결과를 비롯해 '낙후된' 반려동물에 대한 시각과 생존환경에 대해 다루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인간'과 '물건' 이분법적 체계를 가진다. 반려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물

건인 셈이다. 하지만 법적 판결에서 반려동물은 물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때문에 반려동물은 '물건'인 듯 물건 아닌, 물건 같은 동물'로 애매한 위치에 있어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과 '비물건화'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촬영장에서 희생당하는 동물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한 동물 학대를 해결할 수 있는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도 언급했다. 최근 늘어난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동물보호법에 합당한 양형기준과 처벌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반려동물과 동반자로서 인생을 보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합법과 불법 사이 회색지대에 있는 개 식용 논란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고, 사설유기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에 희생당하는 반려동물들의 현주소를 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방안과 감염병에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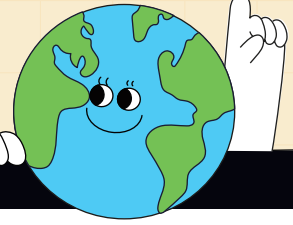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과 반려동물 양육 문화의 현주소를 짚고,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솔직한 시각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들과 반려동물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1석2조 생활습관 공유경제와 쓰담달리기



폭설, 건조, 폭우, 폭염 등 지구의 날씨가 극과 극을 넘나들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개인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만들어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중.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인에게도 좋은 생활습관으로 공유경제와 쓰담달리기가 주목받고 있다.

글 정미래



지구도, 나도 건강하게 해주는 '쓰담달리기'

걷기는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주는 운동이면서 정신 건강에도 좋다. 게다가 많은 준비 없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 하지만 혼자 걸으면 '다음부터'라는 말로 자신과 쉽게 타협하기 마련. 그래서 걷기 모임을 통해 취미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요즘에는 자신의 건강과 함께 지구의 건강도 챙기는 걷기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바로 쓰담달리기이다.

쓰담달리기는 쓰레기를 주우며 걷거나 뛰는 운동으로 플로깅, 줍깅의 우리말 표현이다. 쓰담달리기를 결심했다면 쓰레기를 담은 봉지와 집게만 추가로 챙기자. 여기에 쓰레기를 포착할 수 있는 시야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준비는 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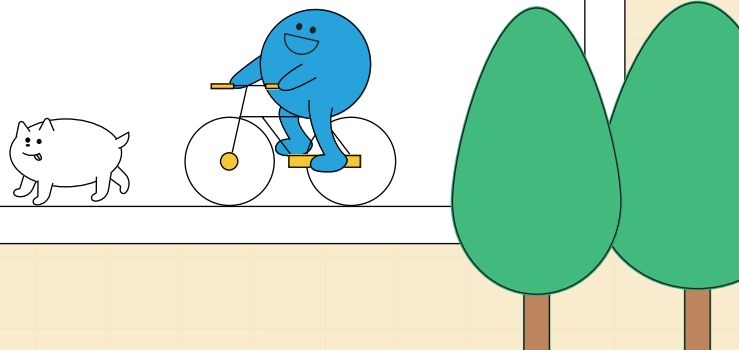
처음에는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일이 쉽지 않다. 쓰레기 줍는 것을 잊고 걷기만 하거나 쓰레기 줍는 것에 열중해 걸음을 멈추기도 한다. 그러나 습관을 들인다면 익숙하게 쓰레기를 주우며 걷거나 뛸 수 있고 심지어 쓰레기를 주우며 등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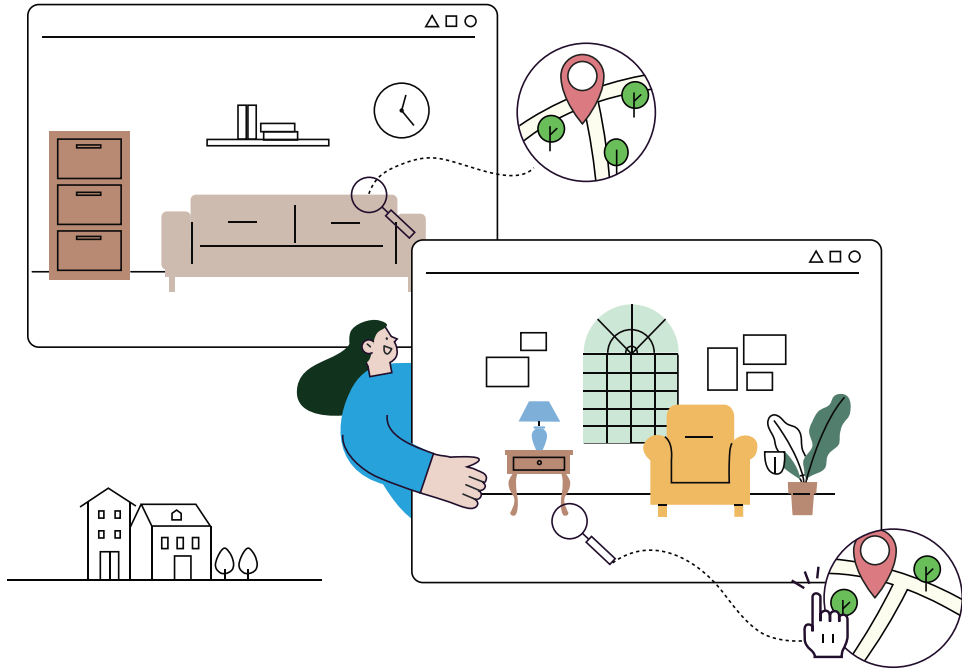
합리적인 소비의 첫걸음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모델이다.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했는데, 2017년 186억 달러 규모였던 것이 2022년에는 402억 달러까지 성장하였다.

이처럼 공유경제가 성장한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 방식도 변화했기 때문이다. 즉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된 것. 게다가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유경제에 쉽게 뛰어 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금은 자신이 공유경제의 소비자인지 모를 정도로, 공유경제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고 있는 순간엔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묘한 매력의 공유경제. 대표적인 공유경제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공간을 공유하다

즐거운 여행의 시작은 여행지와 숙소의 선택에서 시작한다. 보통 호텔이나 리조트 등의 숙박 업소를 떠올리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해외여행지에서 실제 주거지를 빌려서 생활해 보는 경험은 좀 더 색다르게 와닿기도 한다.

코로나19의 영향과 1인 가구의 증가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유 주방을 활용하는 배달전문 음식점도 생겨났다. 아무래도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사업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늘고 있다. 업무 공간은 구분지어 사용하지만 회의실이나 미팅룸, 화장실, 휴게 공간 등은 공용으로 두어 사무실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거기에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사무용 가구나 복합기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탈 것을 공유하다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공유 자전거다. 대중교통처럼 기다리거나 환승할 필요도, 자동차처럼 교통체증에 시달릴 필요도 없다. 또한 보관에 대한 걱정 역시 하지 않아도 된다.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공공 자전거를 출시하면서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하고, 개성 넘치는 이름을 내걸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공공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서울특별시 따릉이의 경우 2018년 9월 100만 명이었던 이용자가 2021년 5월에는 300만 명을 넘어선 것.

자전거의 사용은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자전거로 10km 이동할 시 탄소 2.4kg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공공 자전거

지자체명	공공 자전거 이름	지자체명	공공 자전거 이름
서울특별시	따릉이	세종특별자치시	뉴어울링
대전광역시	타슈	광주광역시	타랑개
경기 수원·고양특례시	타조	경남 창원특례시	누비자
경북 경주시	타실라	경북 영천시	별타고
전남 여수시	여수량	전북 전주시	꽃싱이

자전거와 함께 자동차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인기다. 자동차 유지비가 부담스럽고,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것이 싫어 자동차를 사지 않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 자동차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빌려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다. 또 이용한 만큼의 사용료만 지불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기도 하다.

돈도 건강도 환경도 한 번 놓치면 되돌아오기 힘들다. 공유경제로 실속 있는 경제생활을 하고, 쓰담달리기로 건강과 환경을 챙기는 현명한 지구인이 되자. [i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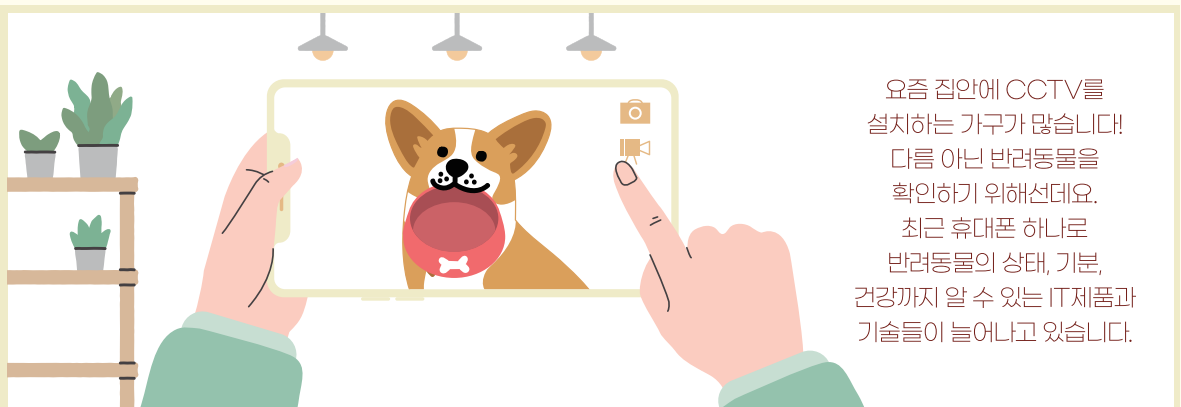
출처: 정책브리핑, 네이버 지식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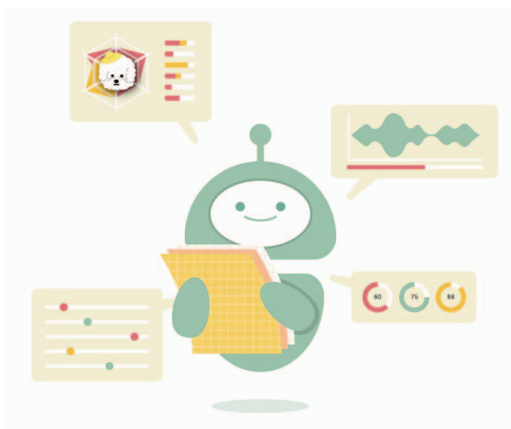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나의 삶의 질도 높여주는 '펫테크'

반려생활과 IT기술의 완벽한 만남



요즘 집안에 CCTV를 설치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다른 아닌 반려동물을 확인하기 위해선데요. 최근 휴대폰 하나로 반려동물의 상태, 기분, 건강까지 알 수 있는 IT제품과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Pet)+기술(Technology) = 펫테크




펫테크란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새로 장만한 장난감은 잘 갖고 노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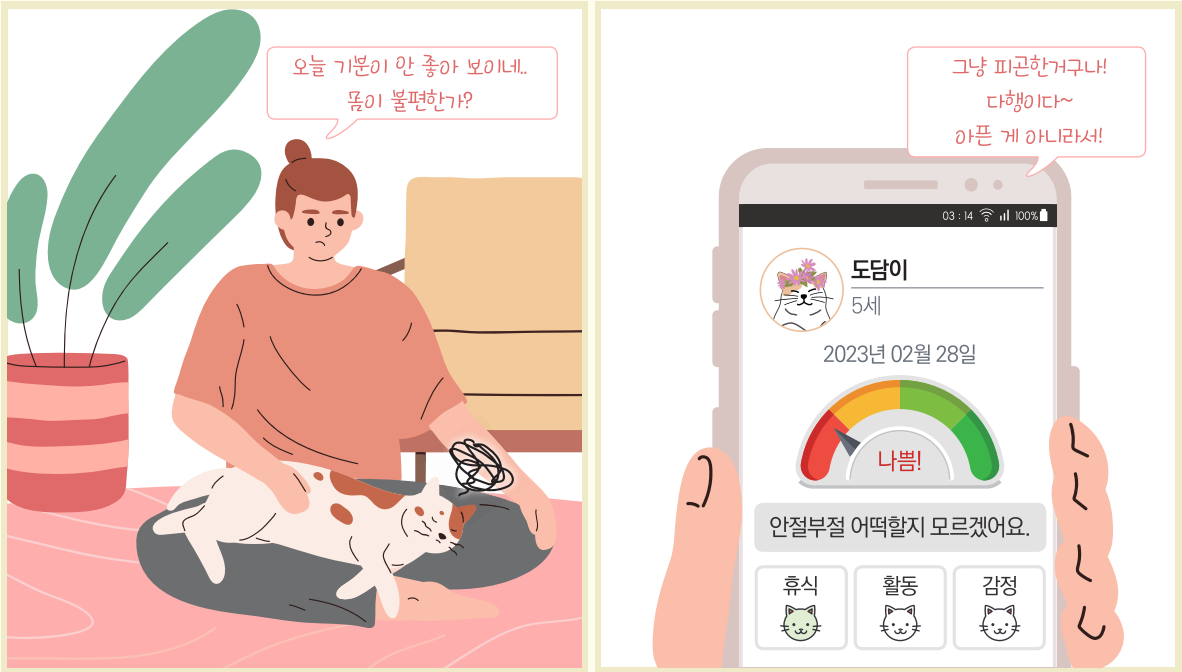


보호자만 사라지면 장난꾸러기로 변신하는 멍돌이와 명순이. 그동안 멍돌이가 집안을 어지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범건은 명순이었어요. 멍돌아 미안해(ㅠ)

반려동물(Pet)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펫테크'는 반려인구의 증가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기술인데, 반려동물을 위한 기술이라는 의미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활성화로 그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는 추세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아이템부터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품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펫테크'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스마트한 반려Life, 펫테크로 시작해보세요!



어느덧 3월이다. 우린 연초에 세운 목표를 착실하게 지키고 있을까.
만일 목표를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의지가 약해졌다면 당신은 지금 '마이루틴' 앱이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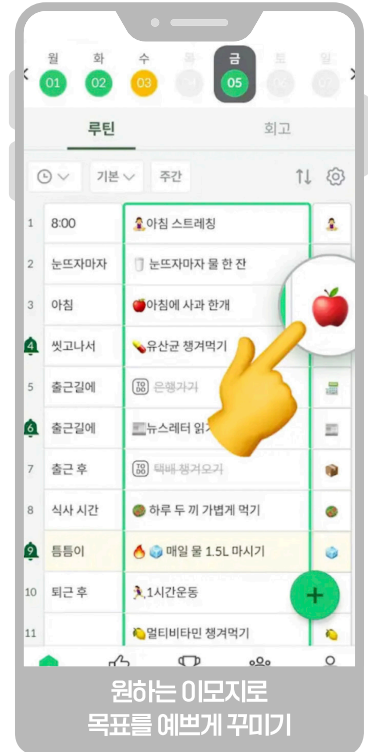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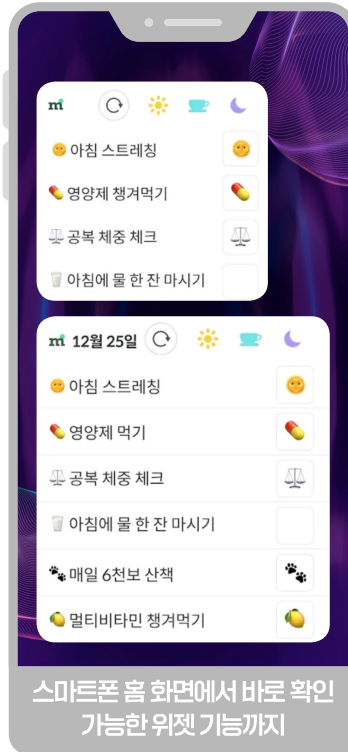
글 김지희

목표 달성의 동반자 '마이루틴'

'땡땡' 유산균 챙겨먹을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해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유산균 챙겨먹기' 등의 소소한 목표들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린다. 그러나 '마이루틴'만 있다면 잊어버릴 걱정은 끝! 나의 생활 루틴을 앱에 적어두기만 하면 알림 기능과 위젯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루틴' 앱을 활용하면 내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나의 루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앱 내에서는 귀여운 이모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 요즘 유행하는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처럼 예쁘게 꾸며 목표에 애착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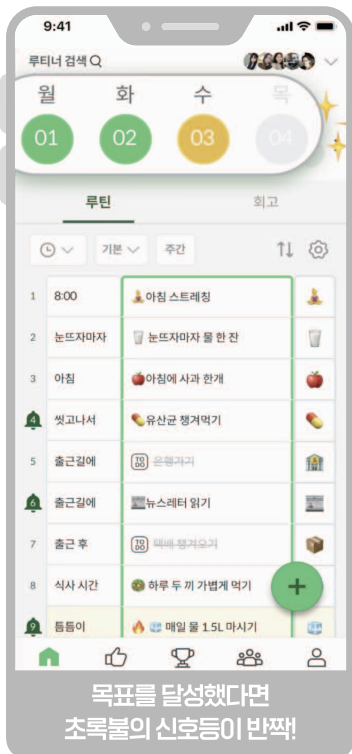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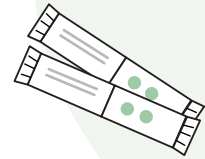
my routine



월간 리포트에 초록불이 가득한 그날까지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어제의 계획은 모두 실천했는지 등을 신호등 기능으로 체크할 수 있다. 전날 '노란불' 혹은 '빨간불'이 켜졌다면, 오늘은 모든 계획을 실행해 '초록불'을 반짝이게 하도록 의욕을 불태우게 해 준다. 하루 하루 그날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면 월말에 확인하는 월간 리포트에 초록불이 가득할 것이다. 다만 초록불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휴식'하는 날로 설정해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루틴'에는 다른 사용자들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해 가족 혹은 친구들과 오늘 하루의 계획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공유해보자. 서로 계획을 잘 지켰는지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 오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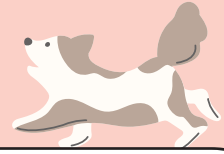


‘펫밀리(Pet+Family)’ 1,500만 시대! 우리 평생 함께하자♡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집 반려동물. 왠지 모르게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혼자 있는 집, 혼자 있는 시간도 혼자가 아닌 ‘함께’인 것처럼 느껴진다. 요즘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가정을 ‘펫밀리’라고 부른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에 펫밀리는 무려 1,500만 명! 앞으로는 집사라는 표현 대신 펫밀리라고 부르자! 🐾

글 김지희



#펫밀리(Pet+Family)



미래야~ 오늘 뭐해? 나랑 저녁 먹을래?

나 오늘 요미 밥 주어야 해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해.



요미? 요미가 누구야?

요미는 내가 3년째 키우고 있는 검정색 고양이야!



미래도 펫밀리였구나?

펫밀리?



요즘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운다고 해서 펫밀리라고 해.

맞어! 난 우리 요미를 너무 사랑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어!



요미를 정말 사랑하는 구나!
그럼 나 오늘 요미 보러 놀러 가도 돼?

그럼~ 요미 밥 주고 저녁 같이 먹자!



그래! 요미 간식을 사가야겠다.

얼른 와!



사학연금(TP) 경영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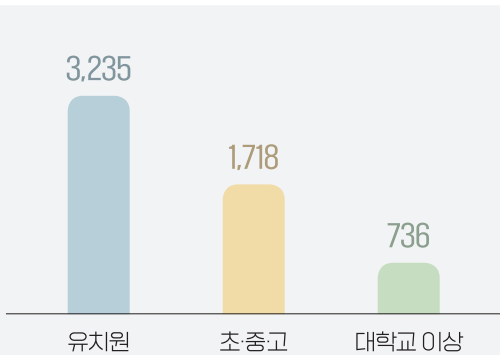
2022년 12월 말 기준

대상 기관 및 교직원, 연금수급자 현황



학교기관 수

단위: 기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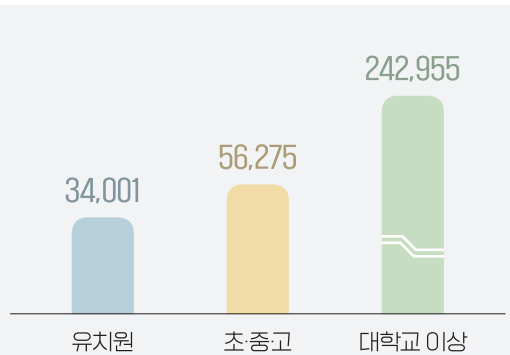


합계: 5,689개



교직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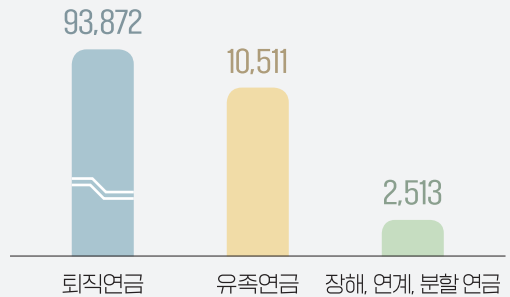
합계: 333,231명



연금수급자

단위: 명

※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 28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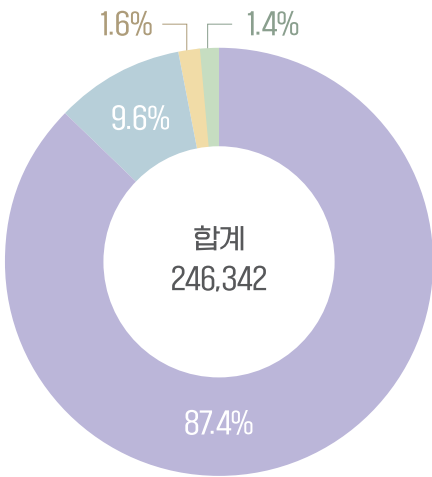


합계: 106,8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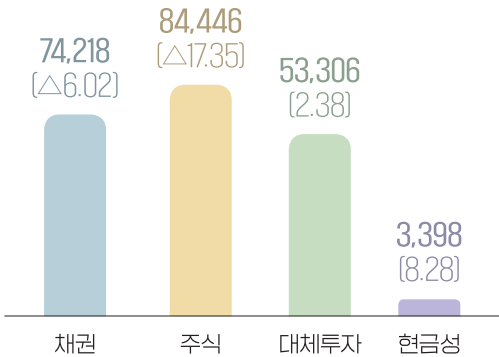
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금액	구성비
● 유가증권	215,368	87.4
● 대여	23,508	9.6
● 유형자산	4,025	1.6
● 유동자산 등	3,441	1.4
소계	246,342	100

금융자산 운용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금액	구성비
● 채권	74,218	△6.02
● 주식	84,446	△17.35
● 대체투자	53,306	2.38
● 현금성	3,398	8.28
소계	215,368	△7.75

주 1) 운용규모: 월말 장부가, 2) 수익률: 시간가중수익률

이벤트는 월간 <사학연금> 웹진에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진에서만 즐기는 이벤트!

- ① 알쏭달쏭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 ② 월간 <사학연금>의 칼럼을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메인 하단 EVENT 코너 클릭!

참여기간: 2023년 3월 9일(목)까지



월간 <사학연금>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3월 9일 마감)

코너명	코너 소개	응모 방법	독자 선물
만남 (인터뷰)	<p>월별 테마에 맞는 사학가족을 찾습니다. 4월호 테마-충무공 이순신(과학기술) 4월 28일은 거북선을 만들어 조선의 바다를 지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를 지켜준 거북선의 모습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호선(守護船)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순신처럼 우리 삶을 지켜준 과학기술을 선보인 선생님 또는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p>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사진 인화 및 탁상용 액자
짓다	<p>사학가족이 직접 쓴 시 또는 수필을 소개합니다. *내용과 주제는 자유</p>	한글 파일 형태로 원고지 10매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1장)로 작성하여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문화상품권
인생 책	<p>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해당 도서를 읽으면 좋은 만한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해당 도서를 보내드립니다.</p>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도서
웹진 이벤트	<p>1. 빈칸 채우기 2. 독자의견</p>	웹진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이벤트 참여 방법

🌐 이메일 magazine@tp.or.kr

- *독자 선물 제공에 필요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 *선물 발송일: 해당 월(기과 글이 게재된 달) <사학연금> 발행 후 15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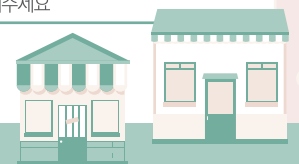
응모기간
2023년
3월 9일(목)

사학연금 제휴 서비스 안내



95개 업체 중 일부만 요약하여 소개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후 제휴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제휴업체	제휴항목	이용방법
복 지 물	(주)현대디지털	할인 종합쇼핑몰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복지물 → TP종합쇼핑몰 → 서비스 이용 바로 가기 → 회원가입 후 이용
	(주)에듀윌	온라인 교육과정 할인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복지물 → 교육복지물 → 서비스 이용 바로 가기 → 회원가입 → 사학연금 인증번호 입력 후 이용
	(주)플러스앤	숙박, 관광업체 할인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복지물 → 여행복지물 → 서비스 이용 바로 가기 → 회원가입 → 사학연금 고유코드 입력 후 이용
	(주)세이프닥	의료시설 할인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복지물 → 의료복지물 → 서비스 이용 바로 가기 → 회원가입 후 이용
국내 숙박	켄싱턴리조트	객실요금 할인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여가서비스 → 호텔콘도리조트 → '켄싱턴' 리조트 지점 선택 → 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 예약 진행
	신화월드	객실요금 할인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여가서비스 → 호텔콘도리조트 → '신화월드' 선택 → 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 예약 진행(프로모션 코드 필요)
	한화호텔&리조트 (설악외12)	객실요금 할인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여가서비스 → 호텔콘도리조트 → 리조트 지점 선택 → 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 예약 진행
	호텔스닷컴	숙박업체 추가할인	호텔스닷컴 홈페이지 → 원하는 호텔 예약 진행 → 결제 시 사학연금 할인 코드 입력
레저 관광	쏘카	대여요금 할인	쏘카APP 설치 후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여가서비스 → 항공여행레저 → 쏘카 → 공지 사항에서 QR코드 스캔
	제주항공	예매 시 할인	제주항공 홈페이지에서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 기업우대 → 임직원 가입 바로가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코드 입력 → 기업 우대 할인으로 예매 진행
상 조	A+라이프	장례서비스 이용료 할인	전화 상담 신청 ☎ 1688-5390
	예다함 상조	장례서비스 이용료 할인	전화 ☎1566-6644 또는 온라인 상담신청 (온라인신청)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생활서비스 → 상조장례 → 예다함상조 → 서비스이용바로가기
법률 상담	최중섭 변호사 (경인강원)	절차, 판례 해석 등 법률상담 (소장, 계약서, 답변서 작성 등 제외)	전화 또는 방문 ☎ 031-211-1234
	김섭 변호사 (대구, 경북)		전화 또는 방문 ☎ 053-755-7510
	조성제 변호사 (부산, 경남, 울산)		전화 또는 방문 ☎ 051-242-9908
	최민령 변호사 (서울)		전화 또는 방문 ☎ 02-565-9881
	김형배 변호사 (대전, 충남북)		전화 또는 방문 ☎ 042-482-1933
	김정현 변호사 (광주, 호남, 제주)		전화 또는 방문 ☎ 062-222-0550
생 활	나비트(KT)/ 나텔레콤(SKT)	휴대폰 단말기 할인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생활서비스 → 휴대폰 → KT휴대폰복지물 또는 SKT휴대폰복지물 → 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가연	가입비 할인 등	전화 ☎1666-8073 또는 QR코드 스캔 (QR코드 스캔방법) 사학연금 제휴복지 사이트 → 여가서비스 → 웰빙 → 가연결혼정보 → 상세설명에서 QR코드 스캔 ※ 전화상담 시 사학연금 회원임을 필히 밝혀주세요



사학연금(TEACHERS' PENSION) QR코드 안내



웹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림톡

알림톡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dream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4110

본사(나주)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 061) 338-0000

서울센터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 02) 769-4403~4, 4408

대전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4층 (둔산동)

☎ 042) 538-2371~2375

부산센터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7층 (범천동)

☎ 051) 637-6013, 6015~6017

서울 · 대전 · 부산센터에서는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을 통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12:00 ~ 13:00)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